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의 2일회의에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 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한 건인불발의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는 수천만인민들의 기대속에 존엄높은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회의에 참가한 대의원들을 축하하시고 격변하는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획기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하시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대외관계를 비롯한 각 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긍정적변화에 대하여 개괄분석하시였다.

불리한 환경과 난관속에서도 주체적힘과 내적동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되고 심도있는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인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더욱 다져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을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과정에 국가사업에서 인민적성격이 뚜렷이 발현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이 현저히 개선됨으로써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애국적열의와 적극성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하시였다.

특히 당의 령도밑에 인민군대가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 인민을 보위하고 사심없이 돕는 혁명적본분에 항상 충실한것으로 하여 군민일치의 훌륭한 전통이 확고히 이어지고 불패의것으로 든든히 다져졌다고 하시였다.

혁명의 계승자들인 우리 청년들의 기세가 고조되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하는 열풍이 세차게 일어난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약동하는 활기를 더해준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지속적인 승리와 양양한 전도를 략관하게 하는 이같은 정치적성과들이 이룩된것이야말로 우리 당과 국가의 무한한 힘으로,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고 언명하시였다.

경제건설분야에서도 자립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통이 큰 작전들이 힘

있게 추진되고 대규모의 중요대상건설사업이 활기있게 전개되고있으며 농업과 국토건설, 도시경영, 과학, 교육, 보건을 비롯한 여러 부문 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심화되어 나라의 부흥발전을 안받침하는 진일보의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국방부문에서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억제할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있는 우리의 첨단무기들과 날로 강화되는 인민군대와 민간 및 안전부력의 전투적면모를 높고서도 사회주의 승리의 앞길을 강력히 개척해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의 강대함을 확신할수 있다

고 하시였다. 정의와 진리를 대표하고 철저한 실행력을 내포한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국제정치무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우리 국가의 대외적권위가 날로 높아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총체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는 부단히 강화되는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더욱더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자기의 발전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당당히 자부할수 있다고 언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현시기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정책적 과업들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시였다. 우리당 제8차대회가 엄숙히 선포한대로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가장 중대한 임무

는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성과, 실질적인 변화로써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립증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비혁명적이고 비전투적인 락후한 모 든것을 불살라버리며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적위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는것이라고 하시였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핵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은 주체조선공유 의 불가항력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우리 국가의 정치풍토, 국풍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실속있고 목적 지향성있게 전개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고취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공민들이 일상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강한 나라의 인민다운 기품과 인격이 발양되도록 옹계 인도하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국가경제의 자립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과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였다.

국가경제를 자립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에 이 행시키는것을 절박한 시대적과제로 제기하고 이 투쟁을 강력하게 조직전개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서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었다

(1면에서 계속)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제사업에서 현시기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원료와 자재, 동력과 설비들을 충분히 생산 보장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 원료를 보장하는 기본생산부문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발전을 전반적 경제발전전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전력과 석탄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당면한 수요만이 아니라 전망적수요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를 전반적으로 개진하기 위한 과업을 밝히시고 기계공업과 정보산업을 발전시켜 설비의 국산화와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높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건설부문에서 송신, 송화지구의 살림집건설을 올해중으로 완공하고 다음단계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현속적으로 진입하여 또 하나의 현대적인 구역과 거리를 일떠세우며 새로운 건축형식을 적극 도입하면서 수도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리고 인민군대에서 말야 추진하고있는 검단지구건설을 빠른 기간안에 결속하고 도, 시, 군들에서도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인민들이 훌륭한 살림집을 쓰고살면서 명명한 생활을 누리게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현시기 가장 중요하고 사활적인 혁명과업은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정책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히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유족한 생활을 제공해주자면 농업발전이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가까운 앞날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는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을 피력하시었다.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농업발전전략을 정확히 작성하고 철저히 집행해나가며 특히 재해성이 상가후에 견디내면서도 수출이 높은 종자들을 육성, 개량하는데 초점을 두고 종자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농작물배치를 대담하게 바꾸어 벼농사와 밀, 보리농사로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구상을 밝히시면서 전국적으로 논벼와 밭벼재배면적을 늘이며 밀, 보리과종면적을 2배이상으로 보장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 인민들에게 흰쌀과 밀가루를 보장함으로써 식생활을 명명하게 개

선해나갈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축산부문에서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대로 염소와 소마리수를 결정적으로 늘이고 전근중적운동으로 토끼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하며 사료단위를 극력 낮추고 수의방역사업을 개선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었다.

특히 당의 새로운 육아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신속있게 전개하여 전국적인 젓생산량을 현재의 3배이상으로 늘이며 젓가공기술을 발전시키고 젓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과일과 남새생산을 집약화하고 대규모 남새은실농장들을 많이 건설하며 기름작물, 당작물을 비롯한 공예작물생산을 추켜세워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한 정책적과업들을 언급하시었다.

현시기 인민생활보장에서 나서는 급선무는 경공업과업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들이 요구하는 필수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으로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6개월이상 선형시켜 무조건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수산업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한 정책적과업들을 언급하시었다.

수산부문에서 고기배와 어구의 현대화와 수리정비를 다그치고 집중적인 어로진투를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통출입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산물가공품들을 만들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명명수준은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국가부흥과 발전, 미래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하시면서 과학과 교육,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밝히하시었다.

공화국정부는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책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과학기술발전과 혁신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키워 그들이 주도적, 핵심적역할을 해나가도록 하는것이 국공으로 되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우리 나라를 선진교육국으로 전변시키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교육중시, 인재수정정책을 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 교육의 새로운 발전을 열어어나갈데 대하여 밝히하시었다.

우리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전체 인민의 건강증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보건제도를 마련하는것은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높을수준에서 축성하고 의료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밝히하시었다.

인민들과 후대들의 운명, 정신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지닌 공화국정부는 마땅히 문학예술과 출판보도, 체육사업을 시대와 현실,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당면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시기 공화국정부가 최대로 증시하고 완벽성을 기하여야 할 사업인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밝히하시었다.

력을 강화하는것은 주권국가의 최우선적인 권리이며 우리식 사회주의 존립과 발전은 국가방위력의 끊임없는 강화를 떠나서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공화국무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건설목표들을 철저히 실현으로 관철할데 대하여 밝히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의연 불안하고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가하시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하시었다.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행동을 로골적으로 벌이고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없이 벌어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남조선당국이 계속 미국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얼마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문제를 논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를 안겨주게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이라고 언명하시었다.

북남관계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런 변화도 보

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시고 지금 북남관계는 현 랭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속에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하시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립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북남관계를 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하며 조선반도주변의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론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역제할 우리의 부동한 립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리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역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괴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색되어있는 현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초부터 판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선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 국제정치정세를 분석하시고 대외사업부문이 다사다변한 외부적환경에 더욱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갈데 대하여 밝히하시었다.

오늘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와 도전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것이 현 국제정세 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볼수 있다고 분석하시었다.

새 미행정부의 출현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바와 같이 우리

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과 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미국이 《외교적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고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외사업부문에서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동향과 미국의 정치정세전망, 급변하는 국제력량관계를 호상련관속에 엄밀히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공화국정부의 대미전략적구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대외사업부문에서 더욱 불안정해지고있는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감에 우리의 국권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을데 대하여 밝히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라고 확인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을 참된 삶의 품으로 여기고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하늘같은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간직한 제일 귀중한것인 재부이며 이 믿음에 토대하는것은 이 나라 수천만 공민들앞에 지닌 우리들모두의 가장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의무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인민앞에 무한히 충실하며 최대의 노력으로써 자기의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다할것이라는 철석의 의지를 엄숙히 표명하시고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구호높이 위대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행복과 안일을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시정연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가리킨 승리의 표대를 향한 전인민적투쟁에 무한한 활력과 고무를 주고 국가정권기관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우리식 사회주의발전의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대장으로 된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 14기 제 5 차 회의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5차회의의 1일회의가 9월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시, 군당 책임비서, 인민위원장들, 도급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5차회의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일회의에서는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되는 법초안들과 재자원화법집행

검열감독정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 셋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고길선대의원이 하였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안을 본 최고인민회의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회의는 상정된 법초안들과 수정보충안을 연구 및 협의회에서 토의한 다음 토론을 진행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을 철저히 집행할데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5차회의의 2일회의가 9월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시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 방청자들은 빛나는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발전단계로 상승시키고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하고 명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적 과업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진지하게 청취하였으며 무한한 격정과 흥분에 넘쳐 열렬한 박수로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시정연설을 마치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2일회의에서는 첫째 의정, 둘째 의정, 셋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대의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회의는 다섯째 의정을 토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

고인민회의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려항공총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으로 합에 대하여》를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소장을 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영광과 행운으로 빛나는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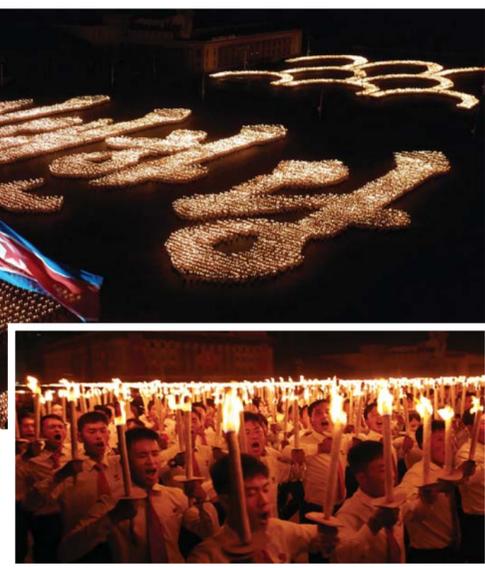
청년 강국을 우뚝 세워 주시어



공화국은 청년들이 강해 더욱 강한 불패의 사회주의 나라이다. 세상에 나라는 많아도 청년강국으로 자랑스럽게 불리우는 나라는 오직 하나 조선이다. 온 나라의 청년들이 령도자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맨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위훈을 창조

들이 강하기때문에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던 2012년에도 그이께서는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라는 크나큰 믿음은 청년들에게 안겨주시었다. 제국주의침략세력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시려고 밀고 힘찬 전진길을 헤쳐가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경축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친히 축하문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당의 사상과 의지로 숨쉬며 당의 두리에 성벽을 이루고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없이 없고 못낼 일이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청년들에 대한 대해같은 사랑과 친금같은 믿음은 이렇듯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해에 장엄히 아로새겨졌다. 청년들에 대한 경애하는 그의 격려와 미더움이 담겨진 부분들은 또 그 열매이다. 《우리 당의 민중적인 척후대, 익추부대》, 《청년대군》, 《우리 시대의 청년애국자》, 《총진군대요의 척후대》, 《전도양양한 젊은 주력부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청년들의 대화합들도 성대히 마련해주시고 청년중시가 공화국의 국풍으로, 조국과 민족의 미래와 직결된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워지도록 고귀한 지침들을 환히 밝혀 주시었으며 청년들을 사랑의 한몸에 안으시고 대를 이어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주신다. 지난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역사적사건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진군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를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의이께서는 서한에서 이번 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할데 대한 중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라는 새로운 명칭에는 우리 혁명의 현 단계에서 청년운동의 성격과 임무가 직선적으로 명백히 담겨져있고 우리 시대 청년들의 리상과 품모가 집약되어있으며 청년조직으로서의 고유한 맛도 잘 살아난다고 밝혀주시었다.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더욱 즐기치게 될것이라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응지와 불변의 의지가 어려있는 강령적지침은 공화국청년들의 가슴마다에 또 다시 세찬 불을 지펴주었다. 지난 8월 조국의 부름앞에 무한히 충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것을 인생의 더없는 영예로,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매우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조국과 인민이 자랑하는 영웅청년으로 이름떨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며 청년절경축행사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온 나라 청년들은 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당의 별동대, 청년애국자의 영예를 빛내어갈 굳은 맹세를 다졌다. 어디 그뿐인가. 일시 잘못된 길에 들어섰던 청년들을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끌어주고 결혼상까지 차려준 한 당일군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정말 고맙다고 한자한자 써 주신 친필글말, 《처녀어머니》의 소행이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하시어 높이 평가하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어 이야기, 백두대지에 청춘대기넘비로 솟구쳐오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청춘대기주를 거니시며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닦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내달리는 백



두청춘들의 영웅적기상과 위훈이라고 격정에 넘쳐 시를 읊으시듯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에서 인민들은 청년들의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어 공화국의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자기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 부패타락한 생활풍조에 물젖은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어 사상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파멸의 나락에 굴러떨어지고있지만 이 땅에서는 동지를 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에 접한

해외동포들의 반향

탁월한 수령을 모신 영광과 행복을 절감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영예를 지닌 나는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장에서 그이를 직접 모신 자제로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받아안았다. 오늘 전세계 인류가 세계적인 제양과 결치는 정치경제적위기에 모대기고있을 때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을 기본정치방식으로 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불멸의 대강을 펼쳐주시고 그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면서 나는 불세출의

통일운동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기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에 따라 중첩되는 모든 도전과 불리한 환경과 난관을 물리치며 주체적성과 내적동력을 증대시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격변의 시기에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확고히 앞당겨올수 있는 명확한 진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이며 필승의 보검이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근년간의 연 불안하고 엄중한 경제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대하여 개발평가하시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승리의 신념을 안겨주는 시정연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정연설에 접하고보니 조국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사실 일기 서방언론들이 조국에서 세계적인 보건의 위기와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떠들 때마다 저는 걱정도 없지 않았습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정연설을 접하고 그 모든 우려가 다 사라졌습니다. 원수님께서서는 전체 인민들이 공화국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하늘 같은 이 믿음에 보답하는것이 이 나라 수천만 공민들앞에 지닌 가장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의무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인민을 존중하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인민의 령도자를 모시고있는한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다고 봅니다. 재중동포 심영실

제할바를 똑똑히 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고있는 실정적근원과 그 해결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정말 명철하게 밝혀주시었습니다. 북남사이애 아무리 훌륭한 선언들을 마련해놓아도 남조선당국이 뿌리깊은 친미사대주의와 대결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절대로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다는것을 우리 해외동포들도 똑똑히 알았습니다.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제할바를 똑똑히 해야 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 협회 부회장 홍영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시험발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에서

9월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시험발사 진행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전투성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실용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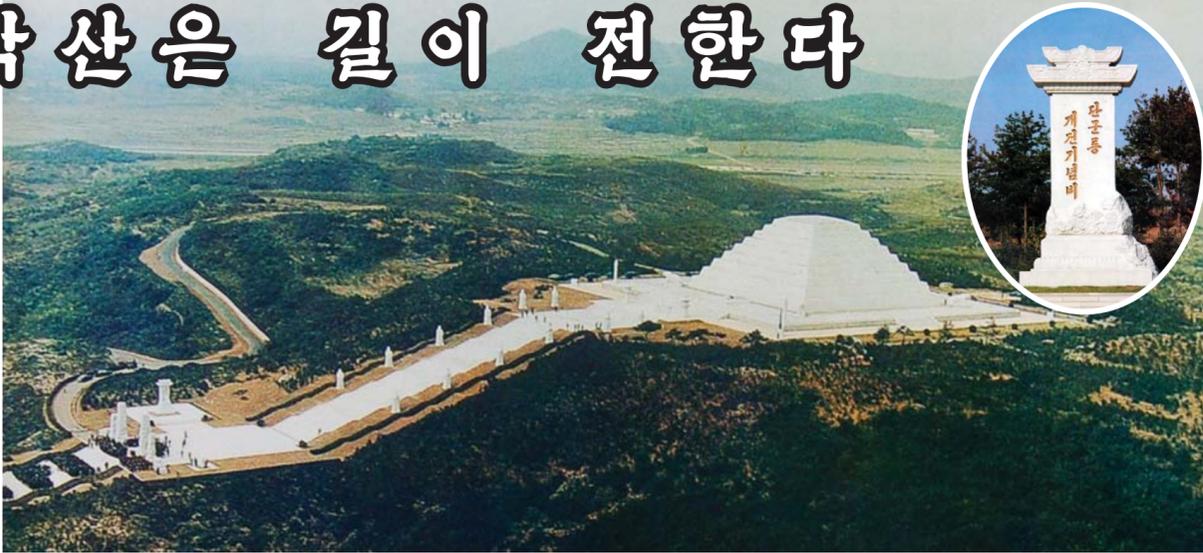
대박산은 길이 전한다

매개 나라와 민족에게는 자기의 역사가 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날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과학적으로 고증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전설로만 전해져 왔다.

그것은 지난날 그릇된 역사관에 의하여 우리 민족사가 심히 왜곡되어온 데 있으며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가 단군관세사까지 불태워버리면서 고조선과 단군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데 기인된다.

이런것으로 하여 단군을 전설속의 인물로, 한낱 신화적인 존재로만 생각하여왔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자기의 시조상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이처럼 민족사의 수많은 사건들과 사실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도록 하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하여 형성되고 발전하여왔던것을 립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 민족의 자량이며 민족성원 모두가 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커다란 성과였다.

있었던 령도를 되찾는 것도 애국이지만 잃었던 령사, 외곡된 령사를 되찾고 바로잡는 것이 애국중의 가장 큰 애국임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통찰하고계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단군릉의 개건을 위해 단군릉복구위원회를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통건설에 필요한 건설력량과 자재와 설비보장대책을 일일이 세우주셨다. 또한 단군릉이 후세에 길이 전할 기념비적전승물이 되게 시대적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해주시고 단군릉을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에 떠받들려 일떠선 단군릉에서는 지난 시기 개건철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한데 모여 민족공동행사를 치르어왔다.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한 개건 절행사는 단군민족의 훌륭한 전통을 살리며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걷어내고 민족의 화해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열의의 드림없는 통일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하였다.

단군릉을 찾은 남조선의 전 대중교 총선교인 안호상은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을 실재한 인물로 밝혀주시고 시조상을 웅장하게 일떠세워주시어 민족의 오랜 령사를 빛내어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피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 민족의 건국시조인 단군의 유골과 유물을 찾게 된 것은 고고학의 대승리라고 못내 만족하시면서 단군이 평양 일대에서 태어나 여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생을 마쳤다는 것이 확증된 조건에서 평양 일대에 원시조의 무덤인 단군릉을 잘 꾸려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단군릉개건과 관련한 협의회를 지도하시면서 남조선사람들이나 해외동포들이 단군릉을 보러 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들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지로 하여 형성되고 발전하여왔던것을 립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 민족의 자량이며 민족성원 모두가 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커다란 성과였다.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어

일찌기 애국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무장투쟁도 민족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며 우리가 되찾고 하는 것은 조국의 땅이여만이 아니라 우리의 령사와 문화, 민족 그 자체라고 하시며 항일대전을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전 과정에 외곡된 령사를 바로잡는 문제를 단순히 학술상의 그릇된 견해나 오류를 바로잡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존엄을 되찾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잃었던 령사, 외곡된 령사를 바로 정립하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해안의 예지와 주체적인 령사관에 의하여 오래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던 단군릉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어 마침내 1993년 2월 단군의 유골과 유물이 발굴되게 되었다. 단군유골의 발굴에 큰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 실체를 정확히 밝혀줄 수 있도록 최신기술수단과 기술력량을 보장해주도록 대책하시고 연구사업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모두 밝혀주시었다. 하여 단군이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발굴당시(1993년) 5011(±267)년전에 태어난 실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의 원시조를 찾게 되었고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령사를 가진 오랜 령사국이 되었고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혈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동방에서 처음으로 선진문명에 들어선 문명한 민족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평양은 조선민족의 성지이며 조선민족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혈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동방에서 처음으로 선진문명에 들어선 문명한 민족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금 남조선에 단군을 숭배하는 대중교인이 몇십만명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단군릉을 보러 올 수 있으며 앞으로 북남래왕이 실현되면 대중교인들이 단군릉에 찾아올 수 있다고, 우리가 단군릉을 잘 꾸려놓으면 대중교인들이 평양에 와서 단군릉을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 실현되면 대중교인들뿐 아니라 남조선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공화국북반부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수천년 령사의 풍운속에 신화로만 전해오던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찾아주시고 시조상을 완벽하게 개건하여 유구한 조국의 령사와 민족의 슬기를 자자손손 공지높이 전할 수 있게 하여주시는 것은 조선민족의 대경사로, 일대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었다.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에 떠받들려 일떠선 단군릉에서는 지난 시기 개건철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한데 모여 민족공동행사를 치르어왔다.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한 개건 절행사는 단군민족의 훌륭한 전통을 살리며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걷어내고 민족의 화해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열의의 드림없는 통일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하였다.

단군릉을 찾은 남조선의 전 대중교 총선교인 안호상은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을 실재한 인물로 밝혀주시고 시조상을 웅장하게 일떠세워주시어 민족의 오랜 령사를 빛내어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피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 민족의 건국시조인 단군의 유골과 유물을 찾게 된 것은 고고학의 대승리라고 못내 만족하시면서 단군이 평양 일대에서 태어나 여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생을 마쳤다는 것이 확증된 조건에서 평양 일대에 원시조의 무덤인 단군릉을 잘 꾸려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단군릉개건과 관련한 협의회를 지도하시면서 남조선사람들이나 해외동포들이 단군릉을 보러 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들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지로 하여 형성되고 발전하여왔던것을 립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 민족의 자량이며 민족성원 모두가 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커다란 성과였다.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어

일찌기 애국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무장투쟁도 민족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며 우리가 되찾고 하는 것은 조국의 땅이여만이 아니라 우리의 령사와 문화, 민족 그 자체라고 하시며 항일대전을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전 과정에 외곡된 령사를 바로잡는 문제를 단순히 학술상의 그릇된 견해나 오류를 바로잡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존엄을 되찾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잃었던 령사, 외곡된 령사를 바로 정립하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셨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의 원시조를 찾게 되었고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령사를 가진 오랜 령사국이 되었고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혈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동방에서 처음으로 선진문명에 들어선 문명한 민족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의 원시조를 찾게 되었고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령사를 가진 오랜 령사국이 되었고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혈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동방에서 처음으로 선진문명에 들어선 문명한 민족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의 원시조를 찾게 되었고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령사를 가진 오랜 령사국이 되었고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혈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동방에서 처음으로 선진문명에 들어선 문명한 민족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의 원시조를 찾게 되었고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령사를 가진 오랜 령사국이 되었고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혈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동방에서 처음으로 선진문명에 들어선 문명한 민족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의 원시조를 찾게 되었고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령사를 가진 오랜 령사국이 되었고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혈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동방에서 처음으로 선진문명에 들어선 문명한 민족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의 원시조를 찾게 되었고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령사를 가진 오랜 령사국이 되었고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혈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동방에서 처음으로 선진문명에 들어선 문명한 민족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의 원시조를 찾게 되었고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령사를 가진 오랜 령사국이 되었고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혈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동방에서 처음으로 선진문명에 들어선 문명한 민족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통일운동사에 새겨진 숭고한 화폭들

올라온 통일운동사의 갈피갈피에는 겨레가 오늘도 잊지 못하는 숭고한 화폭들이 적지 않다.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경륜을 지니시고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를 묶어주시며 북과 남, 해외의 각이한 계층의 사람들을 한사람한사람 만나주시고 통일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수록한 뜻깊은 사진들.

본사편집국은 이번호부터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나는 감동깊은 화폭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려고 한다.

오늘도 겨레는 깊은 감회에 젖어 그날의 뜻깊은 사진을 추억해본다.

민족분열의 첫 기술에서 열린 령사적인 4월남북연석회의의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백범 김구와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사진이다.

이전 《상해협시정부》 주석이였고 당시 《한국독립당》 당수였던 백범 김구.

그는 한생 반공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해방전이나 해방직후에도 공산주의자라면 던져놓고 배척하고 예로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그를 민족분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령사적인 민족적 대화에 참가하도록 친히 초청장을 보내주신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김구는 자기의 과거에 대해 북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옥죄었으며 섣뜻 평양에 올 수가 없었다.

김구를 비롯한 우익계층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는 지난날 나라와 민족앞에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현재 그것을 뒤우치고 이룩한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이것은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부터 견지한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이 립장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김구선생이 담화와 성명을 통해 표명한 립장을 잘 알고있다고, 우리는 김구선생과 과거를 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려 한다고 하시었다.

애국애족으로 일관되어있는 아버지수령님의 뜻과 한없이 넓은 도량에 탄복을 금치 못하며 백범 김구는 결연히 평양길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4월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한 김구는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과 통일애국의 경륜에 더욱 매혹되었다.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는 그의 민족대단결리념, 무한한 정과 열로 온 겨레를 품어안으시는 절세위인의 뜨거운 민족애가 바로 현학 오해, 불신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의 문을 열어 단합이라는 거대한 대하로 떠밀어준 힘이었고 원천이었다.

70여년의 한생을 보내며 뒤늦게 태양의 품에 안겨 애국의 새 삶을 받아안은 백범은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자기의 심정을 담은 시구절을 남겼다.

눈덮인 광야를 지날 때 함부로 걸지 말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따르는 이들의 길 되리라

아버지수령님께서 대해같은 믿음과 포용력, 뜨거운 민족애로 열어준 재생의 길, 통일애국의 길로 백범 김구선생이 걸어가고 그의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이 북행길, 통일애국의 길에 나섰다.

백범 김구가 타친 고백은 그 하나만이 아닌 온 겨레가 타치는 심장의 뒤흔치였고 열렬한 격정이었다.

그의 시구절이 남긴 여운은 온 겨레의 가슴에 크나큰 의미를 심어주고있다. 그것은 위대한 민족의 태양을 따르는 길만이 진정한 애국의 길이며 민족의 살길이라는 생의 진리이다.

통일에 살고 애국에 살자면 절세위인을 따라야 한다는것을 수십년전 한장의 사진이 오늘도 말해주고있다.

《흥연일체의 현장, 그곳의 진실》(1)

연제인가 남조선의 한 령사학교수(철단기술을 모방하기는 어렵지 않다. 선진국을 따라잡고 국민소득을 높이는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화국에서만 불수 있는 평등자와 국민의 흥연일체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어느 위대한 제천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공화국만이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흥연일체의 이룩하고 핵무기도 당해낼 수 없는 천하유일의 무기라고 생각한다.)

평등자와 인민이 흥연일체를 이루고 사는 공화국에 대하여 집약적으로 평한 글이라고 본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생각하고 집도 생각한다》

2016년 9월 함북도 북부평해지역에 갔던 국제기성원들은 회령시에서 11살 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아이의 옷주머니는 정말 말이 아니었다. 신발은 어디에 갔는지 한쪽밖에 없었다.

물어보니 집과 재산도 다 떠내려가고 온 가족이 한지에 나앉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에게서 공포와 비판, 실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놀랐다. 이것은 비단 소녀의 가슴속에만 차있던 것이 아니었다.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주민들모두의 마음속에 역센 바위처럼 들어앉아있는 것이었다.

그 믿음은 천만번 옳았다. 대재앙을 가시기 위한 일을 단숨에 인민들이 입은 인적 및 물질적 피해를 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등자에 대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소녀는 당돌하게 말했다. 일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제 새 집을 지어주신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다 생각한다.

연제인가 남조선의 한 령사학교수(철단기술을 모방하기는 어렵지 않다. 선진국을 따라잡고 국민소득을 높이는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화국에서만 불수 있는 평등자와 국민의 흥연일체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어느 위대한 제천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공화국만이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흥연일체의 이룩하고 핵무기도 당해낼 수 없는 천하유일의 무기라고 생각한다.)

평등자와 인민이 흥연일체를 이루고 사는 공화국에 대하여 집약적으로 평한 글이라고 본다.

연제인가 남조선의 한 령사학교수(철단기술을 모방하기는 어렵지 않다. 선진국을 따라잡고 국민소득을 높이는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화국에서만 불수 있는 평등자와 국민의 흥연일체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어느 위대한 제천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공화국만이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흥연일체의 이룩하고 핵무기도 당해낼 수 없는 천하유일의 무기라고 생각한다.)

평등자와 인민이 흥연일체를 이루고 사는 공화국에 대하여 집약적으로 평한 글이라고 본다.

연제인가 남조선의 한 령사학교수(철단기술을 모방하기는 어렵지 않다. 선진국을 따라잡고 국민소득을 높이는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화국에서만 불수 있는 평등자와 국민의 흥연일체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어느 위대한 제천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공화국만이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흥연일체의 이룩하고 핵무기도 당해낼 수 없는 천하유일의 무기라고 생각한다.)

평등자와 인민이 흥연일체를 이루고 사는 공화국에 대하여 집약적으로 평한 글이라고 본다.

통일운동사에 새겨진 숭고한 화폭들

올라온 통일운동사의 갈피갈피에는 겨레가 오늘도 잊지 못하는 숭고한 화폭들이 적지 않다.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경륜을 지니시고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를 묶어주시며 북과 남, 해외의 각이한 계층의 사람들을 한사람한사람 만나주시고 통일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수록한 뜻깊은 사진들.

본사편집국은 이번호부터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나는 감동깊은 화폭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려고 한다.

오늘도 겨레는 깊은 감회에 젖어 그날의 뜻깊은 사진을 추억해본다.

민족분열의 첫 기술에서 열린 령사적인 4월남북연석회의의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백범 김구와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사진이다.

이전 《상해협시정부》 주석이였고 당시 《한국독립당》 당수였던 백범 김구.

그는 한생 반공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해방전이나 해방직후에도 공산주의자라면 던져놓고 배척하고 예로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그를 민족분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령사적인 민족적 대화에 참가하도록 친히 초청장을 보내주신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김구는 자기의 과거에 대해 북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옥죄었으며 섣뜻 평양에 올 수가 없었다.

김구를 비롯한 우익계층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는 지난날 나라와 민족앞에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현재 그것을 뒤우치고 이룩한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이것은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부터 견지한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이 립장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김구선생이 담화와 성명을 통해 표명한 립장을 잘 알고있다고, 우리는 김구선생과 과거를 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려 한다고 하시었다.

애국애족으로 일관되어있는 아버지수령님의 뜻과 한없이 넓은 도량에 탄복을 금치 못하며 백범 김구는 결연히 평양길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4월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한 김구는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과 통일애국의 경륜에 더욱 매혹되었다.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는 그의 민족대단결리념, 무한한 정과 열로 온 겨레를 품어안으시는 절세위인의 뜨거운 민족애가 바로 현학 오해, 불신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의 문을 열어 단합이라는 거대한 대하로 떠밀어준 힘이었고 원천이었다.

70여년의 한생을 보내며 뒤늦게 태양의 품에 안겨 애국의 새 삶을 받아안은 백범은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자기의 심정을 담은 시구절을 남겼다.

눈덮인 광야를 지날 때 함부로 걸지 말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따르는 이들의 길 되리라

아버지수령님께서 대해같은 믿음과 포용력, 뜨거운 민족애로 열어준 재생의 길, 통일애국의 길로 백범 김구선생이 걸어가고 그의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이 북행길, 통일애국의 길에 나섰다.

백범 김구가 타친 고백은 그 하나만이 아닌 온 겨레가 타치는 심장의 뒤흔치였고 열렬한 격정이었다.

그의 시구절이 남긴 여운은 온 겨레의 가슴에 크나큰 의미를 심어주고있다. 그것은 위대한 민족의 태양을 따르는 길만이 진정한 애국의 길이며 민족의 살길이라는 생의 진리이다.

통일에 살고 애국에 살자면 절세위인을 따라야 한다는것을 수십년전 한장의 사진이 오늘도 말해주고있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생각하고 집도 생각한다》

2016년 9월 함북도 북부평해지역에 갔던 국제기성원들은 회령시에서 11살 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아이의 옷주머니는 정말 말이 아니었다. 신발은 어디에 갔는지 한쪽밖에 없었다.

물어보니 집과 재산도 다 떠내려가고 온 가족이 한지에 나앉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에게서 공포와 비판, 실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놀랐다. 이것은 비단 소녀의 가슴속에만 차있던 것이 아니었다.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주민들모두의 마음속에 역센 바위처럼 들어앉아있는 것이었다.

그 믿음은 천만번 옳았다. 대재앙을 가시기 위한 일을 단숨에 인민들이 입은 인적 및 물질적 피해를 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등자에 대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소녀는 당돌하게 말했다. 일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제 새 집을 지어주신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다 생각한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생각하고 집도 생각한다》

2016년 9월 함북도 북부평해지역에 갔던 국제기성원들은 회령시에서 11살 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아이의 옷주머니는 정말 말이 아니었다. 신발은 어디에 갔는지 한쪽밖에 없었다.

물어보니 집과 재산도 다 떠내려가고 온 가족이 한지에 나앉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에게서 공포와 비판, 실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놀랐다. 이것은 비단 소녀의 가슴속에만 차있던 것이 아니었다.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주민들모두의 마음속에 역센 바위처럼 들어앉아있는 것이었다.

그 믿음은 천만번 옳았다. 대재앙을 가시기 위한 일을 단숨에 인민들이 입은 인적 및 물질적 피해를 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등자에 대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소녀는 당돌하게 말했다. 일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제 새 집을 지어주신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다 생각한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생각하고 집도 생각한다》

2016년 9월 함북도 북부평해지역에 갔던 국제기성원들은 회령시에서 11살 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아이의 옷주머니는 정말 말이 아니었다. 신발은 어디에 갔는지 한쪽밖에 없었다.

물어보니 집과 재산도 다 떠내려가고 온 가족이 한지에 나앉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에게서 공포와 비판, 실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놀랐다. 이것은 비단 소녀의 가슴속에만 차있던 것이 아니었다.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주민들모두의 마음속에 역센 바위처럼 들어앉아있는 것이었다.

그 믿음은 천만번 옳았다. 대재앙을 가시기 위한 일을 단숨에 인민들이 입은 인적 및 물질적 피해를 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등자에 대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소녀는 당돌하게 말했다. 일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제 새 집을 지어주신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다 생각한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생각하고 집도 생각한다》

2016년 9월 함북도 북부평해지역에 갔던 국제기성원들은 회령시에서 11살 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아이의 옷주머니는 정말 말이 아니었다. 신발은 어디에 갔는지 한쪽밖에 없었다.

물어보니 집과 재산도 다 떠내려가고 온 가족이 한지에 나앉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에게서 공포와 비판, 실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놀랐다. 이것은 비단 소녀의 가슴속에만 차있던 것이 아니었다.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주민들모두의 마음속에 역센 바위처럼 들어앉아있는 것이었다.

그 믿음은 천만번 옳았다. 대재앙을 가시기 위한 일을 단숨에 인민들이 입은 인적 및 물질적 피해를 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등자에 대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소녀는 당돌하게 말했다. 일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제 새 집을 지어주신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다 생각한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생각하고 집도 생각한다》

2016년 9월 함북도 북부평해지역에 갔던 국제기성원들은 회령시에서 11살 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아이의 옷주머니는 정말 말이 아니었다. 신발은 어디에 갔는지 한쪽밖에 없었다.

물어보니 집과 재산도 다 떠내려가고 온 가족이 한지에 나앉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에게서 공포와 비판, 실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놀랐다. 이것은 비단 소녀의 가슴속에만 차있던 것이 아니었다.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주민들모두의 마음속에 역센 바위처럼 들어앉아있는 것이었다.

그 믿음은 천만번 옳았다. 대재앙을 가시기 위한 일을 단숨에 인민들이 입은 인적 및 물질적 피해를 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등자에 대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소녀는 당돌하게 말했다. 일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제 새 집을 지어주신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다 생각한다.

통일운동사에 새겨진 숭고한 화폭들

올라온 통일운동사의 갈피갈피에는 겨레가 오늘도 잊지 못하는 숭고한 화폭들이 적지 않다.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경륜을 지니시고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를 묶어주시며 북과 남, 해외의 각이한 계층의 사람들을 한사람한사람 만나주시고 통일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수록한 뜻깊은 사진들.

본사편집국은 이번호부터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나는 감동깊은 화폭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려고 한다.

오늘도 겨레는 깊은 감회에 젖어 그날의 뜻깊은 사진을 추억해본다.

민족분열의 첫 기술에서 열린 령사적인 4월남북연석회의의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백범 김구와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사진이다.

이전 《상해협시정부》 주석이였고 당시 《한국독립당》 당수였던 백범 김구.

그는 한생 반공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해방전이나 해방직후에도 공산주의자라면 던져놓고 배척하고 예로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그를 민족분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령사적인 민족적 대화에 참가하도록 친히 초청장을 보내주신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김구는 자기의 과거에 대해 북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옥죄었으며 섣뜻 평양에 올 수가 없었다.

김구를 비롯한 우익계층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는 지난날 나라와 민족앞에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현재 그것을 뒤우치고 이룩한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이것은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부터 견지한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이 립장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김구선생이 담화와 성명을 통해 표명한 립장을 잘 알고있다고, 우리는 김구선생과 과거를 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려 한다고 하시었다.

애국애족으로 일관되어있는 아버지수령님의 뜻과 한없이 넓은 도량에 탄복을 금치 못하며 백범 김구는 결연히 평양길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4월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한 김구는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과 통일애국의 경륜에 더욱 매혹되었다.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는 그의 민족대단결리념, 무한한 정과 열로 온 겨레를 품어안으시는 절세위인의 뜨거운 민족애가 바로 현학 오해, 불신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의 문을 열어 단합이라는 거대한 대하로 떠밀어준 힘이었고 원천이었다.

70여년의 한생을 보내며 뒤늦게 태양의 품에 안겨 애국의 새 삶을 받아안은 백범은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자기의 심정을 담은 시구절을 남겼다.

눈덮인 광야를 지날 때 함부로 걸지 말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따르는 이들의 길 되리라

아버지수령님께서 대해같은 믿음과 포용력, 뜨거운 민족애로 열어준 재생의 길, 통일애국의 길로 백범 김구선생이 걸어가고 그의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이 북행길, 통일애국의 길에 나섰다.

백범 김구가 타친 고백은 그 하나만이 아닌 온 겨레가 타치는 심장의 뒤흔치였고 열렬한 격정이었다.

그의 시구절이 남긴 여운은 온 겨레의 가슴에 크나큰 의미를 심어주고있다. 그것은 위대한 민족의 태양을 따르는 길만이 진정한 애국의 길이며 민족의 살길이라는 생의 진리이다.

통일에 살고 애국에 살자면 절세위인을 따라야 한다는것을 수십년전 한장의 사진이 오늘도 말해주고있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생각하고 집도 생각한다》

2016년 9월 함북도 북부평해지역에 갔던 국제기성원들은 회령시에서 11살 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아이의 옷주머니는 정말 말이 아니었다. 신발은 어디에 갔는지 한쪽밖에 없었다.

물어보니 집과 재산도 다 떠내려가고 온 가족이 한지에 나앉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에게서 공포와 비판, 실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놀랐다. 이것은 비단 소녀의 가슴속에만 차있던 것이 아니었다.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주민들모두의 마음속에 역센 바위처럼 들어앉아있는 것이었다.

그 믿음은 천만번 옳았다. 대재앙을 가시기 위한 일을 단숨에 인민들이 입은 인적 및 물질적 피해를 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등자에 대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소녀는 당돌하게 말했다. 일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제 새 집을 지어주신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다 생각한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생각하고 집도 생각한다》

2016년 9월 함북도 북부평해지역에 갔던 국제기성원들은 회령시에서 11살 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아이의 옷주머니는 정말 말이 아니었다. 신발은 어디에 갔는지 한쪽밖에 없었다.

물어보니 집과 재산도 다 떠내려가고 온 가족이 한지에 나앉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에게서 공포와 비판, 실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놀랐다. 이것은 비단 소녀의 가슴속에만 차있던 것이 아니었다.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주민들모두의 마음속에 역센 바위처럼 들어앉아있는 것이었다.

그 믿음은 천만번 옳았다. 대재앙을 가시기 위한 일을 단숨에 인민들이 입은 인적 및 물질적 피해를 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등자에 대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소녀는 당돌하게 말했다. 일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제 새 집을 지어주신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다 생각한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생각하고 집도 생각한다》

2016년 9월 함북도 북부평해지역에 갔던 국제기성원들은 회령시에서 11살 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아이의 옷주머니는 정말 말이 아니었다. 신발은 어디에 갔는지 한쪽밖에 없었다.

물어보니 집과 재산도 다 떠내려가고 온 가족이 한지에 나앉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에게서 공포와 비판, 실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놀랐다. 이것은 비단 소녀의 가슴속에만 차있던 것이 아니었다.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주민들모두의 마음속에 역센 바위처럼 들어앉아있는 것이었다.

그 믿음은 천만번 옳았다. 대재앙을 가시기 위한 일을 단숨에 인민들이 입은 인적 및 물질적 피해를 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등자에 대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소녀는 당돌하게 말했다. 일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제 새 집을 지어주신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다 생각한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생각하고 집도 생각한다》

2016년 9월 함북도 북부평해지역에 갔던 국제기성원들은 회령시에서 11살 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아이의 옷주머니는 정말 말이 아니었다. 신발은 어디에 갔는지 한쪽밖에 없었다.

물어보니 집과 재산도 다 떠내려가고 온 가족이 한지에 나앉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에게서 공포와 비판, 실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놀랐다. 이것은 비단 소녀의 가슴속에만 차있던 것이 아니었다.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주민들모두의 마음속에 역센 바위처럼 들어앉아있는 것이었다.

그 믿음은 천만번 옳았다. 대재앙을 가시기 위한 일을 단숨에 인민들이 입은 인적 및 물질적 피해를 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등자에 대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소녀는 당돌하게 말했다. 일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제 새 집을 지어주신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다 생각한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생각하고 집도 생각한다》

2016년 9월 함북도 북부평해지역에 갔던 국제기성원들은 회령시에서 11살 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아이의 옷주머니는 정말 말이 아니었다. 신발은 어디에 갔는지 한쪽밖에 없었다.

물어보니 집과 재산도 다 떠내려가고 온 가족이 한지에 나앉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에게서 공포와 비판, 실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놀랐다. 이것은 비단 소녀의 가슴속에만 차있던 것이 아니었다.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주민들모두의 마음속에 역센 바위처럼 들어앉아있는 것이었다.

그 믿음은 천만번 옳았다. 대재앙을 가시기 위한 일을 단숨에 인민들이 입은 인적 및 물질적 피해를 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등자에 대한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소녀는 당돌하게 말했다. 일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이제 새 집을 지어주신다. 웃도 생각하고 신발도 다 생각한다.

통일운동사에 새겨진 숭고한 화폭들

올라온 통일운동사의 갈피갈피에는 겨레가 오늘도 잊지 못하는 숭고한 화폭들이 적지 않다.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경륜을 지니시고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를 묶어주시며 북과 남, 해외의 각이한 계층의 사람들을 한사람한사람 만나주시고 통일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수록한 뜻깊은 사진들.

본사편집국은 이번호부터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나는 감동깊은 화폭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려고 한다.

오늘도 겨레는 깊은 감회에 젖어 그날의 뜻깊은 사진을 추억해본다.

민족분열의 첫 기술에서 열린 령사적인 4월남북연석회의의 이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백범 김구와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사진이다.

이전 《상해협시정부》 주석이였고 당시 《한국독립당》 당수였던 백범 김구.

그는 한생 반공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해방전이나 해방직후에도 공산주의자라면 던져놓고 배척하고 예로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그를 민족분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령사적인 민족적 대화에 참가하도록 친히 초청장을 보내주신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김구는 자기의 과거에 대해 북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옥죄었으며 섣뜻 평양에 올 수가 없었다.

김구를 비롯한 우익계층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는 지난날 나라와 민족앞에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현재 그것을 뒤우치고 이룩한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이것은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부터 견지한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이 립장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김구선생이 담화와 성명을 통해 표명한 립장을 잘 알고있다고, 우리는 김구선생과 과거를 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려 한다고 하시었다.

애국애족으로 일관되어있는 아버지수령님의 뜻과 한없이 넓은 도량에 탄복을 금치 못하며 백범 김구는 결연히 평양길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4월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한 김구는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결과 통일애국의 경륜에 더욱 매혹되었다.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는 그의 민족대단결리념, 무한한 정과 열로 온 겨레를 품어안으시는 절세위인의 뜨거운 민족애가 바로 현학 오해, 불신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의 문을 열어 단합이라는 거대한 대하로 떠밀어준 힘이었고 원천이었다.

70여년의 한생을 보내며 뒤늦게 태양의 품에 안겨 애국의 새 삶을 받아안은 백범은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자기의 심정을 담은 시구절을 남겼다.

눈덮인 광야를 지날 때 함부로 걸지 말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따르는 이들의 길 되리라

아버지수령님께서 대해같은

지배와 예속, 전횡과 약탈을 위한 조약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 체결 68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10월 1일은 미국과 남조선 사이에 《호상방위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68년이 되는 날이다.

조선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국은 남조선에서 자국군대를 철수시킬 대신 남조선을 영구 기뢰로 덮고 동북아시아 지배와 복침을 위한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 이 조약을 만들어냈다.

이 조약에 의해 미국은 저들이 필요로 하는 남조선의 일의 지역을 미군기지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미군기지가 남조선의 좁은 땅덩어리 위에 거미줄처럼 촘촘히 들어앉게 되었다.

미국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게 되면서 남조선당국은

인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친분학적역수의 《방위비》를 해마다 미군에 넘겨버려야 하였다.

폐기된 미군기지의 독오물,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것도 남조선의 몫으로 되어있다.

《동맹》이라는 사슬에 꿰어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터, 분쟁마당들에 남조선의 청장년들을 《대포망》으로 보내야 하였다.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으로부터 후날에는 남조선 감점 미군의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합법화한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이라는 것도 생겨났다.

이 《행정협정》이 어떤 치욕적인 《협정》인가 하

는 것은 미선이자 효순이를 장갑차로 무참히 깔아죽인 미군범죄자를 저들 법정에서 《무죄》로 선고하고는 본국으로 빼돌려 남조선인민의 거센 분노를 산 2002년 6월의 두 녀중학생 학살사건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남조선의 땅도, 사람도, 주권도 미국이 마구 주무르려 하는 것이 바로 《한미 호상방위조약》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력을 비롯한 한 종미세력에게는 그 조약이 명줄을 부지하는 《부작》 같은 것일지는 몰라도 절대다수의 남조선인민들은 불평등조약, 치욕의 노예문서로 여긴다.

그 조약은 위험천만한 전쟁

문서이기도 하다.

《호상방위》의 명목으로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곤 한다.

《팀 스피리트》, 《연합전시중원연습》, 《올지 포커스 렌즈》, 《올지 프리덤 가디언》, 《키 리졸브》, 《독수리》... 명칭은 여러번 바뀌고 그 규모나 방식도 달라졌지만 절대로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도발적 성격이다.

전쟁연습, 다름아닌 제2의 조선전쟁을 넘두에 둔것이고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시연회, 전쟁예비연습이라는 점이다.

그 전쟁연습들에서 《선제

타격》, 《평양정경》, 《참수작전》과 같은 흉악한 음모들이 실전화되고 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전조선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침략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은 《합법》의 모자를 씌워 주는 도구로 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호상방위조약》이다.

조약에는 《본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남조선을 침략적군사기지로 삼고 영구히 타고 앉아있으려는 미국의 본심을 드러내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반미의 함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최근 남조선언론 《CBS》가 행진시 남조선을 극동 최대의 핵무기국으로 만든 미국의 책동자료들을 폭로하였다.

《남조선은 핵무기전시장과도 같았다》

— 남조선언론이 보도 —

언론은 미국이 핵무기의 남조선배치와 관련한 기록을 철저히 숨기고 비밀해제된 자료들에서도 민감한 정보들을 삭제하였지만 미국정부기관

과 연구기관들의 각종 자료들과 미군부대들의 감각 등에서 미처 삭제되지 못한 자료들과 전문가들의 증언 등을 종합분석하여 미국이 조

선전쟁직후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배치를 검토하고 실제로 거의 1000기에 달하는 핵무기를 남조선감점 미군기지에 배치하였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1956년 11월 1일에 작성된 《국동군사령부 운영절차》를 통해 미국이 경기도 안양과 의정부에 핵무기를 배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단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훈련과 조종사 1명이 1대의 공군기를 타고 표적에 핵무기를 투하하는 비행훈련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CBS》는 이러한 자료들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시설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종합분석하고 있다고 하는 미국과학자협회의 핵정보관련 국장과 한 인터뷰내용도 함께 공개하였다.

인터뷰에서 그 국장은 《남조선은 마치 핵무기전시장과도 같았다. 가장 많을 때는 8종의 핵무기가 배치됐다. (어니스트 존) 지상대 지상핵미사일, (마타도르) 핵순항미사일, AMD핵지뢰, 280mm핵직사포, 203mm핵직사포, B61핵폭격기용핵폭탄, (나이키 헤르클레스) 대공 및 지상대지상핵미사일, 155mm핵직사포가 차례로 배치됐다. ... 이것은 당시 이 나라가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전체량보다도 5배가 많은 수자였다.》고 발언한데 대해 언론은 전하였다.

본사기자



지지를 에 비낀 남녘민심

—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의 주장 —

남조선에서 다음이 《대선》 후보들이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온갖 모지름을 다 쓰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민심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언론들의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근 북수의 여론조사에서 전체 유권자중에서 중도, 무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높아져 역대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대선경선에 돌입하면서 각종 여론조사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눈에 띄는 후보가 없이 혼전양상이 다.》고 보도하였다.

남조선의 《매일경제》도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선대선판세가 오리무중이다. 여야 모두 지지를 1, 2위후보간 격차가 오차범위수준인데다가 유력후보들을 중심으로 각종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지하는 정당도 없다.》고 전하였다.

년 투표현황까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 남조선의 정치분석가들은 《지금은 아직 국민들이 후보자를 판단할 시기가 아니다. 이번에도 막판까지 가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설민심에서 대선여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평하였다.

정계의 한 인물은 련이어 터져나오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정부패의혹이 지지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유력대선후보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보다 뭐가 터지느냐가 변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민심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10대,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각종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지하는 정당도 없다.》고 전하였다.

남조선의 《매일경제》도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선대선판세가 오리무중이다. 여야 모두 지지를 1, 2위후보간 격차가 오차범위수준인데다가 유력후보들을 중심으로 각종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지하는 정당도 없다.》고 전하였다.

사실들은 선거개입사건, 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을 비롯한 각종 부패사건과 관련되어있는 정당들과 그 후보들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류현철

들출수록 구린 내 나는 보수야당

역시 전쟁대결당, 사대(賣國)당이다

시론

남조선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외교안보정책공약이라는 것들을 발표하고 있다.

뒤 특별한 것은 없고 늘 고야대던 미국과의 《동맹강화》, 《합동군사연습복원》, 《국제공조》와 같은 반동일, 반민족적인 궤변들이어서 까마귀 백번 울어도 가쪽 소리라는 말을 다시금 실감하게 하였다.

지난달말에 있는 TV토론회에서는 느닷없이 《작전계획 5015》 소리가 튀어나왔다고 한다.

— 문: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

— 답: 일단 미국에 전화부터...

홍준표의 물음에 대한 윤석열의 대답이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전쟁대결당, 사대공작당의 본색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이미 《공개전 비밀》인 《작전계획 5015》는 《전면전》을 가당한 《작전계획 5027》과 《북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작전계획 5029》, 공화국의 전략적대상들에 대한 공중타격위주의 국지전계획인 《작전계획 5026》 등을 통합한 것이다.

특히 유사시 동족에 대한 《선제타격》과 《참수작전》, 《평양정경》 등과 함께 《탐지, 방어, 교란, 파괴》의 《4D작전개념》이 반영된 것도 《작전계획 5015》의 특징이라고 한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봄, 가을에 벌어지는 대규모의 전쟁연습들은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막대한 혈세를 낭진하여 진행하고 있는 첨단무기의 개발과 구입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조선의 어느 한 군사전문가는 《한미는 그동안 평양의 주요지휘

부와 낭비핵시설, 북전역에 있는 주요 미사일기지들만 몰래내 《죽집계식》으로 타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왔다.》, 《2019년부터는 (수북지역에 대한 치안, 질서유지)와 (안정화작전) 까지 포함되었다. 이것은 (유사시 북침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러한 북침전쟁계획, 핵전쟁계획을 홍준표가 꺼내들었다는 것은 그의 머리통속에 온통 동족대결만이 짙 들어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대선》후보로 나선 기획에 자기의 《안보관》을 광고하여 보수세력의 지지표를 끌어모아보려는 수작인 것이다.

대결로 몰아야 하는 홍준표도 그리 하지만 윤석열은 또 어떠한가.

남여지던 누가 자기를 봐달라고 울기부터 하는 철부지처럼 《비상시국》이면 미국에 먼저 전화를 하겠다니 친미사태가 얼마나 골수에 차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지 않았는가.

극악한 전쟁광신자, 반민족, 반동 일적인 무지무도한 자들을 《대선》에 비후보로 내세운 것이 바로 《국민의 힘》이다.

오죽하면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들의 외교안보정책공약들에 대해 남조선 각계 《철부지팔복대장들의 전쟁놀이공약》, 《통일해방공약》, 《미친 공약》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였는가.

하기는 달리 말할 수도, 달리 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국민의 힘》과 같은 남조선의 보수세력이다.

친미사태와 동족대결, 분열과 매국에 기생하며 버리지같은 목숨을 부지해온 것들에서 올바른 말을 기뻐한다는 것은 까마귀의 주둥이에서 피골세의 노래를 바라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요즘 남조선선거판을 들여다보면 터져나오는 것이 부패 다보고 들리는 것이 각종 추문들이다.

선거초반부터 여야당사리, 후보들은 또 후보들끼리 비방전, 흑묘전이 란무하여 한 차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 형국이다.

그속에서 그 무슨 처가부정부패사건, 《X과일》, 불륜설, 막말 등 가지가지의 부패의혹들과 추문들이 득러진 홍수마냥 쏟아져나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귀를 어지럽힌다.

최근에는 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여야당이 대판들이 드잡이를 벌이고 있다.

문제의 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이란 현재 여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경기도지사 리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

파해칠수록 풍기는 악취

직할 당시 대장동일대에 주택지구를 개발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특검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부당한 리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이 사건의 중심에 여당후보가 있다고 떠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들고나오고 보수언론과 전문가들도 《단군 이래 최악의 부정부패사건》이라고 부채질을 해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민의 힘》 후보 윤석열의 선거부정개입의혹사건으로 정국이 혼들리고 민심이 흉흉해져서 이를 수습하고 사태를 억지시키기 위해 《국민의 힘》이 들고나온 것이 바로 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이라는 설이 나온다.

이 사건에 대한 소리가 나돈지 며칠도 안되어 의문점을 풀만한 부패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국민의 힘》 의원 광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우기 그 배경에는 박근혜 집권시기 청와대인정수석이었던 아버지의 직책이 작용하였고 또 광상도도 2016년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주요관리들과 모종의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실들이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화산은 《국민의 힘》으로 집적되었다.

이들뿐이 아니다.

홍준표 역시 윤석열의 주택공약이 여당후보들의 공약을 그대로 옮겼었고 그의 다른 공약은 자기가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고 비난해

었다.

광상도가 급기야 탈당을 선언했으나 《국민의 힘》은 《도마뱀꼬리자르기》식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여당은 광상도만이 아니라 《국민의 힘》의 모모한 인물들이 이 사건에 여러가지로 련관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과 그의 장인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와 긴밀한 련계가 있었다는 자료가 또 등장하였던 것이다.

광상도도 윤석열도 《국민의 힘》 전체가 아니라 손사래를 치지만 남조선민심은 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에서 보수의 부패와 음모를 직감하고 있다.

파해칠수록 풍기는 악취

남조선인민들이 평한 것처럼 원래 온갖 탐욕과 부패는 보수의 장기가 아니었던가.

《차떼기》, 《안동》, 《세풍》 등은 물론이고 리명박의 BBK주가조작사건, 내국동맹투기사건, 박근혜의 특대형부정부패사건 등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된다.

남조선민심은 지금 바람앞의 초불과 같은 형편이다.

하지만 시정배들은 민생은 뒤전에 두고 눈앞의 리익과 권력을 위해 서로 물고뜯기에 여념이 없다.

들추면 들출수록 구린내가 풍기는 것이 두둑더미인 것 처럼 《국민의 힘》을 파해칠수록 부패의 악취가 물씬 풍긴다.

두입은 발에 나가면 보약이 되지만 부패는 사회에 나가면 독약이 되는 법이다.

심철민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민이다.

그는 윤석열이 들고나온 부동공약의 내용과 수자가 자기의 공약을 그대로 표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다.

가만있으면 《돌고래》 윤

석열이 아니어서 그는 그대로 류승민이 지난 《대선》 때 다른 정당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써먹은 사실을 까밝히며 공약표절의 명수는 오커려 류승민이라고 맞박아쳤다.

공약에도 저작권과 특허권이 있느냐 하는 윤석열의 주장 또한 사람들을 웃기는 것

나섰다.

이에 뒤질세라 또 다른 후보도 로조문제에 대한 홍준표의 공약이 여당후보의 것과는 다르다고 옮겼었고 그의 다른 공약은 자기가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고 비난해

은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속을 사고 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속을 사고 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속을 사고 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속을 사고 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속을 사고 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연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훔쳐왔으면 분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 텐데 내 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 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

국제로인의 삶을 맞이하며

북방은 삶은 로년기에 도

지난 10월 1일은 국제로인의 날이다. 1990년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45차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뚜렷이 나타나고있는 인구고령화가 사회경제발전에서 주는 영향을 인식함에 기초하여 10월 1일을 국제로인의 날로 정하고 이를 계기로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일수 있도록 할것을 결정하였다. 인구로화는 세계적으로 나타나고있는 현상으로서 21세

기의 가장 주되는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2019년 유엔인구기금이 밝힌데 의하면 세계적으로 약 1초에 2명이 60살생일을 맞고있으며 1년동안에 그 수는 거의 5 8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세계인구중 9명당 1명이 60살이상의 로인이다. 2050년에 가서는 그 수가 4명당 1명으로 늘어날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인구로화의 주되는 요인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줄어듦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데 있다. 이러한데로부터 오늘날 년로자보호사업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로년기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활동을 적극 벌리며 자제로 수입증대를 위한 활동을 벌리고있는 결과 그들의 자립성이 공고화되고 가정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높아지고있다. 반면에 로인들에 대한 차별현상도 우습하

게 나타나고있으며 전통적인 가정보호형태가 점차 사라지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시설에 의한 보호가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적합한 보호대책이 없이 생활조건과 건강상, 성별상차별을 받으며 고독속에서 살고있는 로인들이 늘어나고있다. 하다면 공화국의 년로자들은 어떤 삶을 누려가고있는가.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년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여 보람찬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왔다. 공화국에서는 이미 수십년전에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에서 모든 공민들에게 전반적인 무상치료를 실시하며 특히 년로한 환자들에게 무상치료의 혜택이 잘 보장되도록 그들을 책임적으로

돌봐줄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을 채택함으로써 년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고 년로자보호사업에서 제도적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년로자들을 존대하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해마다 전승절이면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뜻깊은 대화합인 전

국로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고있으며 사람들은 세상에 부럼없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려고있는 전쟁로병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전사회적으로 로병들을 혁명선배로 존경하고 내세우며 우대하는 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자리잡고있어 누구나 그들의 친자식이 되어 세심히 돌봐주고있다. 나라의 곳곳마다에 일떠선 전쟁로병보양소와 양로원들에서 량만과 회일에 넘친

년로자들의 노래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딘가나 인생말년에도 패기와 활력이 넘쳐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년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속에 백살장수자들이 늘어나고있으며 국가에서는 그들이 백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은정어린 생일상까지 보내주고있다. 진정한 인생의 황혼기에도 약동하는 젊음으로 즐겁고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이런 현실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흉내조차 낼수 없는것이다. 하기에 많은 년로자들이 이 좋은 제도를 위해, 혁명선배라는 부름앞에 떨떠하기 위해 조국을 위한 헌신의 길에 모든것을 목숨까지 바쳐가고있다. 국가에서는 인민들에게 가장 값높고 보람찬 삶을 보장해주고 인민은 고마운 제도를 받들어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는 여기에 가장 우월한 공화국의 사회주의참모습이 있는것이다.



2019년 촬영



2021년 촬영

리진덕

독자문답

재중동포 광영자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는 년로자들을 위해 어떤 시책들을 실시하는가?

공화국에서 년로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공고발전과 경제문화적제부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여온 앞선 세대이다. 그들은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 전사회적인 관심과 보살핌속에 혁명선배로 떠받들리며 살고있다. 이들에 대한 보호사업은 도덕과 료리로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는 일정한 로동년한을 가진 근로자들에게 년로년금을 주고 각종 사회적혜택으로 보조금을 주며 로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양로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부양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져 있다.

공화국은 년로자들이 혁명의 선배,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년로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 년로자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고있으며 조국을 위해 자기들의 피를 아낌없이 바친 전쟁로병들,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년로자들을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고있다. 년로자들의 생활은 물론 건강까지도 책임지고 보호해주는것은 공화국정부의 년로자보호정책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장수자대렬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는것만 놓고보아도 이를 잘 알수 있다.

최근년간에 들어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정속에 나라의 곳곳마다에 년로자들을 위한 전쟁로병보양소와 양로원들이 새로 일떠섰다. 이 궁궐같은 보금자리에서 서그칠새없이 울려 퍼지는 년로자들의 량만과 회일에 넘친 노래소리와 웃음소리는 그대로 사회주의에 대한 다함없는 찬가이다. 공화국에서는 국제로인의 날을 비롯한 뜻깊은 계기들에 년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예술활동과 체육활동을 활발히 조직하여 년로자들이 회열과 량만에 넘쳐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고있다.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년로자들은 인생의 황혼기에도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를 부르며 여생을 즐기고있다.

올해 일흔여섯살 나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연구사인 교수 박사 김순선생의 가정에는 자량이 많다. 김순선생의 형제들과 가족들속에서 8명의 박사가 나온것이다.

국제로인의 날을 맞이하며 가정을 찾은 기자에게 김순선생은 자랑보따리를 펼쳐놓았다. 누구는 전기공학박사이고 누구는 천문학박사 또 누구는 물리학박사... 하고 손으로 꼽아가는 주름잡힌 그의 얼굴에는 행복의 미소가 함뿍 어려있었다. 김순선생은 수여받은 학위학직증서들도 하나하나 펼쳐보였다.



김순선생 (왼쪽에서 첫번째)

로관학자간정의 자랑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김순선생의 가정을 찾아서◇

평범한 한가정의 자랑이라고 하기에는 결코 가볍다고 볼수 없는 수많은 증서들이었다. 《우리 가정의 첫 학위소유자는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1948년 7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우리 나라에서의 첫 학위학직증서 10여명의 과학자들에게 수여되었는데 그때 남조선사회를 떠나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온 저의 아버지(김중회)에게도 수여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 김중회선생은 해방전 수의학을 연구해보려는 꿈을 안고 일본으로, 부산으로 동봉서주하였다고 한다. 허나 차례전것은 망국의 갖은 천대와 멸시뿐이었다. 나라가 해방되자 김중회선생은 부산에서 가족위생연구소를 책임지고 민족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할 예국의 일념을 안고 많은 우역예방약을 만들어 공화국북반부에 보내었다. 조선의 과학자로서 우역예방약을 만들어 보내준것은 웅대한 일이였으나 늘들은 선생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연구소에서 내쫓기까지

하였다. 《과학자로서 안겨줄 품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38°선을 넘었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런 저의 아버지를 몹소 만나주시고 미국놈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살자니 고생이 많았겠다고, 북반부에서는 선생과 같은 과학자들을 나라의 보배로 아끼고있으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시책들을 실시하고있다고 고무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를 나라의 첫 학위학직소유자의 한사람으로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후 사람들속에서 《소

박사》로 불리며 수의예방약연구에서 큰 공로를 세운 김중회선생은 김일성상계관인, 원사, 교수, 박사로 자라났다. 고마운 공화국의 품속에서 김순선생의 일곱형제들과 자식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과학자, 연구사로 일하고있다. 선생의 가정에는 원사, 교수, 박사중서를 비롯하여 학위학직증서들이 무려 43개나 된다. 김순선생은 말하였다. 《43개의 학위학직증서, 바로 여기에 북반은 우리 가정의 어제와 오늘이 그대로 비껴있습니다. 학위학직증서는 과학자의 명예칭호이기 전에 조국의 크나큰 믿음이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기에 어머니조국의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도당인정하여 과학연구사업에 한생을 강고리 바쳐갈 결심입니다.》 본사기자 홍병식



아름효자 부러울손가

—평양양로원을 돌아보고—

몇해전에 재미동포 김지영선생이 공화국의 평양양로원을 돌아보고 자기의 소감을 글로 남겼다. 그 글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 * * * * 조국방문기간 년로자들의 행복넘친 현장을 돌아보며 받아안은 감동은 헤아릴수 없이 컸다. 민족적향취가 짙게 풍기는 고래등같은 2층기와집, 심장생의 하나인 백학을 형성한 멋진 울타리, 취향에 따라 선택할수 있는 온돌침실과 침대침실, 비결이 없이 편리하고 가정적분위기가 살아나

게 꾸러진 식사실, 운동실, 놀이터, 치료실, 영화관, 그 옛날 궁궐의 안뜰을 방불케 하는 아담한 내정과 록음악을 거진 공연... 손을 꼽으며 열거하는것은 어느 고급호텔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평양양로원이 이야기이다. 자식이 없는 늙은이들이 이런 호화로운 집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여생을 즐기고있다. 이곳에서 만나 본 보양생들은 저마다 자랑도 많았다. 지팡이를 짚고다니던 할아버지가 양로원에서 병을 다

털고 대지를 활보한다. 이발이 나빠 식사를 못하던 할머니가 이동치료를 나온 치과병원선생들의 정성으로 새이발대를 해내고 10년은 젊어졌다. 복반은 그들에게 어찌 아홉효자가 부럽고 백자손손이 그리울손가. 꼭 북나라에 갔다온것만 같다. 제벌총수들의 별장도 울고 갈 이런 눈부신 궁전들이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의 보금자리라니, 직접 보지않았다면 백번을 듣는대도 절대 믿지 못했을것이다. 한해전 사업상우무로 한겨

울 머물렀던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하철역과 철도역들마다 무질서하게 들어선 《지합집》들에서 추위에 떠는 로숙자들, 그들의 대부분은 자식없는 늙은이들이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보호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도시기획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서 역주변에서 강제퇴거시키고있었다. 북부조국에서는 명암처럼 대조되는 판이한 현실이 아닐수 없다. 탄복과 함께 생각도 깊어진다. 수수천년 따라지신세를 면치 못하던 불운아들

의 운명이 천양지차로 뒤바뀌었다. 어느 시대에서나 사회의 어두운 그늘속에 내버려뒀던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세상이 부림도록 탄복을 누리려고있었다. 이곳 일꾼들은 물론 보양생들까지 따라서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감동적이었다. 새로 일떠선 평양양로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년로자들에게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궁궐같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신 정말 기쁘다. 우리는 년로자들을 늘 관심하고 잘 돌봐줌으로써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신 년로자보호정책을 철저히, 정정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고 하니 이 얼마나 정교고 살뜰하고 세심한 사랑과 정의 세계인가. 태양의 빛과 열에는 한계가 있어 음식과 동토대가 있지만 그이의 사랑에는 음식도 동토대도 없다. 평양양로원과 같은 년로자들을 위한 훌륭한 보금자리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사업의 출발점으로 삼고있는 북부조국에서만 일떠설수 있다. 이런 년로자보호시책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조차 낼수 없다. 정말 인민이 사는 별나라이다. 조국인민들이 부럽고 년로자들이 누리는 락이 신비스럽기만 하다.

전쟁같은 삶을 산다

남조선로인들의 비참한 처지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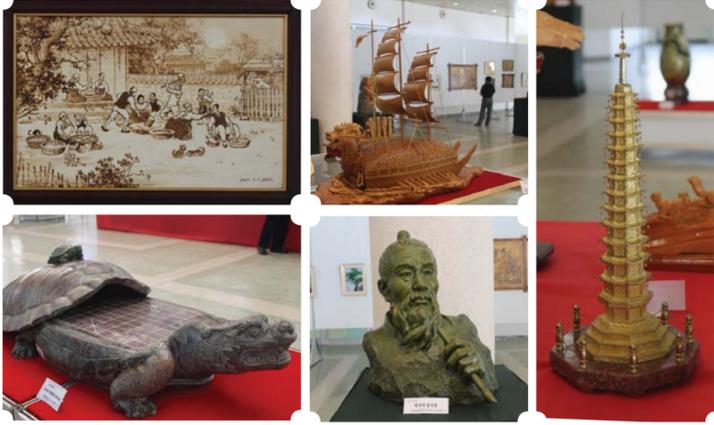
사회적고립도수준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다.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다면 버려버릴 도리가 없는것이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남조선로인들은 스스로 세상을 등진다고 한다. 자살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급속히 증가한다. 로인자살률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는 아동, 청소년, 성인의 소득빈곤률에 비해 로인의 소득빈곤률이 현저히 높은것과 련된다. 이 땅에서 로인들은 지금 전쟁같은 삶을 살고있는것이다. 또한 남조선집지 《한겨레21》의 기자는 《한국판 (하루로인) 이 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로인빈곤문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실제 눈앞에 만난 빈곤로인은 정말로 비참했다고 하면서 취재를 하며 공포가 물려왔고 기사를 쓰며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했다. 지팡이를 휘감으며 돌고도는 악순환

남조선집지 《한겨레21》은 《가난해 일하다치고 가난해지는 로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늙은 몸으로 먹고살기 위해 다치는데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한 로인의 불쌍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로인은 66살나이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아래로 떨어져 목과 척추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수술뒤에도 고통은 계속되었다. 회사에 부탁해서 다른 일을 하기도 했으나 71살부터는 몸이 버티지 못해 그만두고 그만두었다. 로인재해는 상대적으로 산업재해인정을 받기 힘들다. 최근에는 로인이 위암관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잡지는 가난하니까 먹고 살려고 일하고 일하니까 다치고, 다치니까 더 가난해진다. 지팡이를 휘감으며 돌고도는 악순환이라고 썼다. 본사기자



풍만한 민족적정서, 섬세한 예술적기교

— 제2차 전국조각, 공예 축전장을 돌아보고 —



얼마전 옥류전시관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돌경축 제2차 전국조각, 공예축전은 민족고유의 정서와 섬세한 예술적기교를 엿볼수 있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이번 축전에는 공화국의 미술창작기관 조각가, 공예사들과 애호가들, 각급 대학, 학교 학생들과 유치원어린이들이 창작한 수백여점의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이번 축전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생활풍습을 형상한 조각, 공예작품들이었다.

석고조각 《애국자 문익점》은 고려미술창작자의 박성국이 창작한 작품이다.

누구나 문익점이라고 하면 목화를 떠올리고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애국심을 읽어보게 된다.

기자와 만난 장현철 문화성 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조각은 나라위한 길에서 변함없는 역설 의지를 보여주는 근엄한 얼굴표정과 한손에 틀어쥔 북대의 형상으로 애국의 마음을 지닌 인물의 형상을 세련된 수법으로 잘 형상하였다.》

70살이 넘는 고령의 나이에 나라를 위해 왜적과의 싸움에 과감히 나선 서산대사를 형상한 목공예 《서산대사》는 향산군 향산우공장 로동자 기영훈이 창작한 작품이다. 조형성과 예술성이 잘 결합된 작품에서는 몸전체가 기백있게 솟구쳐오르는 형상과 장점을 차고 높이 쳐든 손, 백발을 날리며 왜적을 무찌르는 성전으로 모두를 부르는 서산대사의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 주었다.

이밖에도 고려미술창작사 한도철, 리광일의 작품인 목공예 《거북선》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전통적인 생활풍습과 미술품을 보여주는 인두화 《풍속도》, 《농악무》, 《소물이군》과 역사유적들인 《다보탑》과 《13층석탑》을 정교하고 섬세한 금속공예품으로 형상한 작품들도 축전장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축전장을 돌아볼수록 조선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이 가슴뿌듯이 새겨졌다.

본사기자 김진혁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녀자유술계의 강자 김진아



2019년에 진행되었던 국제녀자유술경기대회에서 조선의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가 편이 금메달을 쟁취하였을 때 세계유술계는 범접 못했다. 그가 바로 김진아이다.

평양시 랑랑구역의 평범한 로동자가장에서 막내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고 성적이 쾌활하면서도 침착한것으로 하여 선생님과 동무들의 사랑을 받았다.

청소단체육학교에서 유술을 배우기 시작한 그녀는 평양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면서 2011년에 진행된 아시아 청년 및 청소년유술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전문가

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는 2019년 아시아-태평양유술선수권대회에서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이 대회는 아시아와 오세안주 여러 나라들에서 온 기술이 높고 로련한 선수들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큰 규모에서 진행되었다.

19명의 선수가 참가한 녀자 57kg급경기에서 맞대드는 선수들을 모두 물리친 그는 결승경기에서 일본선수와 대결하게 되었다.

일본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전적을 가진 몽골선수를 이기고 결승경기

에 올라온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이 우승후보자로 주목하고 있었다.

결승경기시작부터 김진아선수는 주도권을 틀어쥐고 자기의 특기기술을 살린 련속 공격을 틀어쥐어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일 맹세를 안고 이약하게 혼련한 그는 국제유술련맹 아부다비그랜드슬램유술경기대회, 국제유술련맹 후회오르그랜드슬램 유술경기대회, 청도세계유술자경기대회에서도 우승하여 랑랑색공화국기를 세계의 하늘가에 날리었다.

본사기자

고려의학적변증치료방법 적극 활용

◇보건성 피부전문병원에서◇

공화국의 보건성 피부전문병원에서 여러 피부질환치료에 효과를 볼수 있는 가치있는 의학적기술들을 연구완성하여 임상실전에 적극 받아들여지고있다.

중앙외과의 의료일군들은

풍만한 림상경험과 선진과학기술자료를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중앙치료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치료방법들을 내놓았다.

병원에서는 연구성과들을

치료사업에 도입하기 위한 의료기구들도 제작하여 환자치료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보고있다.

종합실험검사과의 장희숙 과장, 림현금의사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자체의 힘으로 성능높은 우드들을 창안 제작하고 임상실전에 구현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우드들을 가지고 치료사업을 해본데 의하면 각종 피부질환에 따라 빛의 색깔이 각이하게 나타나기때문에 신속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과학적인 치료대책을 세울수 있다고 한다.

의 말에 의하면 환자의 체질특성과 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변증한데 기초하여 고려약처방을 구성하고 약량과 침구치료를 배합하여 치료함으로써 난치병으로 되어 있던 탈모증과 두드러기, 건선치료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한다.

홍순희과장은 《피부질환을 단순한 외과적인 질병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문진, 눈검파상태, 맥박 등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질병의 원인과 동기를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말했다.



고려치료과에서도 환자의 체질과 병증상에 맞게 약물치료를 구성하는 고려의학적변증치료방법으로 피부부형치료에서 개선을 가져왔다.

정정혁 고려치료과 의사

본사기자 한일혁

단군제례 국가비물질문화유산

공화국의 비물질문화유산에는 해마다 단군릉에서 진행되는 개천절기념행사인 단군제례도 있다.

단군제례란 개천절을 맞으며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을 기리어 단군릉이나 단군사당을 비롯한 그의 유적이 있던 곳에서 제를 올리는 의식을 말한다.

우리 겨레는 수천년을 내려오는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숭배하면서 단군제례를 지내어 왔다.

단군제례는 수천년동안 여러 지방들에서 천신제, 태백산제 등의 이름으로 그 명맥을 이어왔는데 고려시기에도 평양의 숭령전과 구월산 삼성사를 비롯하여 각지의 단군사당들에서 해마다 단군제례가 진행되어왔다.

철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신화적인 존재로만 전해오던 단군이 실재한 민족의 원시조로 고증되었으며 공화국에서는 단군릉이 우리 민족의 만민재보로 훌륭히 개건되어 해마다 개천절기념행사가 열리고 단군제례가 진행되고있다.

단군제례는 단군릉의 제상에 제물을 차려놓고 그앞에서 단군성왕을 기리어 목상한 후 단군성왕께 제주를 올리고 조선성왕을 세번 한 다음 다시 단군성왕을 기리어 목상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해마다 개천절을 맞으며 전민적행사로 성대히 진행되는 단군제례는 해외동포들이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유서깊은 설화, 찬란한 문화 조선화 《씨름》

사람, 옹크리고 앉아 긴장해서 씨름판을 주시하는 사람, 손을 들어 혼수를 하는 사람과 부채로 얼굴을 가리우고 숨을 죽여가며 넘겨다보는 사람 등 구경꾼들의 개성적인 모습들도 제각각이지만 씨름경기에는 아랑곳없이 돌아서서 먼곳을 바라보며 엿을 사라고 소리를 치는 엿장사총각의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다.

두 씨름꾼을 중심으로 거의 정방형에 가깝게 구경꾼들을 둘러앉게 한 화면구성은 씨름꾼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씨름판의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게 한다.

수많은 인물들의 각이한 모습들을 빼곡이 둘러앉으면서도 시원한감을 느끼게 하는 화면구성과 오른쪽의 여유있는 공간조사는 화면의 폭을 넓혀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그림은 화가가 지니고있던 근로하는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애착심과 당시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감정, 락천적인 성격을 진실하게 재현한것으로 하여 조선화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사화

《쇠도리깨다!》 (1)

클리빈, 그림 김윤일

《난 오늘 밤 싸움에서 왜놈 두셋은 더 잡는건데 칼이 란것이 기장이 짧다나니 그만 놓쳐버렸단 말이야. 분해 죽겠거든, 칼이 창만큼만 길 있어두...》

《우리 봉산의병대의 장군이 야간기습이라는게 놈들과 영겨들아가는 싸움인데 이런 판에선 그저 막 휘둘러치는 병기라야 제격이지. 현대 창이란 물건은 휘두르기는 고사하구 하나씩, 하나씩 꼭꼭 겨누어 찌르거든 태먹었는즉 새까만 밤에야 뭐 어디 툭툭히 봐야 어찌지.》

《그건 사실일세. 휘두르는 병기라던 어방대구 후려쳐두 걸릴거란 말이야. 운수좋은 때면 한번에 두어놈쯤 두어 놈을 만들수 있을걸!》

《칼은 짧아 적병이 한치만 멀어두 헛갈질이요 창은 또 잘 보지 않아 변바루 겨눌수 없어 헛갈질이니, 그저 속만 탈수밖에...》

한밤중 풍덕몰의 왜군무리를 밟다 치고나서 지진한 할말로 돌아오는 길에 봉산의병대원들은 자기들이 가진 병장기들의 부족점을 놓고 이렇듯 불만을 터쳤다.

싸움뒤마다 거의 매번 있던 불만은 오늘 또 거듭되고있는것이였다. 그럴만큼 창이나 칼은 극복하지 못할 제 나름의 제한을 가지고있었다.

아까부터 입을 꼭 다물고 묵묵히 걸기만 하던 필도가 그만애 듣기가 싫었던지 애기판에 끼어들었다.

《싸움판끝마다 되썩군 하는 그런 소리 이젠 좀 그만 두세. 그런 창두 칼두 없는 몽둥이의병들이 수두룩한 판에 어디 따질 바랄 처지가 되는가. 이불것을 봐가며 다릴 피야 해.》

그의 말투에는 역중기가 다분히 어려있었다. 곁에서 함께 걸이하던 현술이가 그를 타이렸다.

《이보라구 필도, 뭐 언젠개 생각할게 아니야. 사람이 속이 라는데 가만있을수 있는가.》

《...》

물론 현술이의 심정도 다른 의병들과 다를바가 없었다. 참으로 후려치는 병장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의병대는 야간기습전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안다는것이 농사일뿐이고 군사는 전

혀 깔깔이던 농군-의병들이 칼이나 창같은 병장기가 어방없이 모자라는 형편에서 저들보다 모든게 우세한 왜군무리들과 맞서다보니 전선을 펴고 밀고당기는 큰 싸움을 벌일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거듭되는 궁리 끝에 생각한것이 재빠른 기동에 의한 불의기습 및 육박전이었다. 이렇듯 적들과 맞붙어들어가는 전투정황에서 타격반경이 넓게 휘둘러치는 무기의 필요는 실로 절실한것이였다. 길이가 대체로 팔 한길장밖에 안되는 칼이나 대상을 하나하나 따르다로 겨누어 내질러야만 하는 창은 능력상제한이 많았다. 칼과 창에서의 부족점을 바로 낮차음에서는 물론 개개 목표가 뚜렷지 않은 야간기습전에서의 헛갈질, 헛참질이란 무수하기 그지없었다. 하여 헛물켜기에서 힘은 힘대로 다 진하고 잠을 수 있는 적병들을 놓쳐버릴뿐 아니라 바로 그것에 자기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때가 얼마인지 모른다.

《한족 우리 싸움법에 맞는 병장기를 요구하는거야 옹당하지.》 하고 현술이는 동료

의병들의 한탄에 공감하였다. 잠시후 누군가가 갑자기 《창이 어쩡다 칼이 어쩡다 해두 그런것들이야 품퐁퐁했으면 좋겠네, 제길!》 하고 역중스에 한마디 던졌다. 그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있었다. 여러 의병들이 맞장구를 쳤다.

《그러기 말일세!》

《뭐 닷할게 있는가. 원래 병장기들이런 예로부터 그렇게 생겨먹은걸.》

《우러들이 더 큰 힘을 내지 못하는건 알쥬니 창칼의



수효가 적은탓이야.》

그렇다. 더 좋은 병장기는 말고라도 창이나 칼조차 부족하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의병들이 몽둥이를 들고 백병전에 뛰어드는가.

현술이는 의병들의 원망을 들으며 내심 탄식을 금할수 없었다.

《워낙 농사군인 우리는 군

사도 모르는데다가 이렇듯 병기까지 모자라니 어쩡된 좋담?》

...동들무렵.

봉산의병부대의 기지이자 자신들의 집이 있는 할말에 도착한 이들은 김만수의병장에게 전투결과를 보고한 뒤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갔다. 어느 집에서든 밀마당질이 급히 그들을 부르고있었던것이다.

의병들은 필요에 따라 혼련도 벌리고 전투마당에도 뛰어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하지를 갖 넘긴 밀보리가 울시기는 이른바 밀장마철이기도 하다.

그렇만큼 이때에는 비가 많이 온다. 하기에 밭에서 밀보리가 뿌리를 끊기만 하면(밀보리가 완전히 다 어물고 질이 마른 때를 두고 농군들은 밀보리가 뿌리를 끊는다고 한다.) 어떻게 하나 비를 맞지 않으려고 늪은이, 녀인, 어린애 할것없이 그야말로 밤술가락 드는 사람이면 통털어 떨쳐나 밀보리가을에 달려들었다. 어찌나 급하면 《밀보리가을은 도적질하듯!》이라는 말이 다 생겼는가.

밀보리는 베는 족족 당장 그 자리에서 짐마당으로 끌어들인다. 소가 있으면 좋고 동집, 머리인, 어깨메기 등 운반수단에 가릴것이 없다. 바짝 마른 밀보리가 한번 비를 맞는 날에는 날씨가 무더운 탓에 곧 썩어 나간다. 한마디로 익은 밀보리가 비에 젖으면 망하고마는것이다. 가난한 살림에 배를 고폴으며 허리를 꼬부리고 봄내 농사를 지어 간신히 버리고개에 이르렀는데 밀보리가 망하면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하여 부지깽이도 뛰쳐나온다. 고양이사촌이라도 빌려서 고깃을 지경에는 말도 나왔다. 고향이 멀어지면 더더욱 그렇다.

이렇듯 급하다급한 농사철이건만 농군들은 왜오랑개놈들을 때려부시는 싸움에 떨쳐나서야만 하였다.

10월의 절기로는 한로와 상강이 있다.

한로는 찬이슬이, 상강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에서 이르는 말이다.

상강이 지나서부터 날씨는 차지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해지며 추위가 오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가을걷이와 낱알릴기로 바쁜 계절이다. 그러므로 가을걷이때에는 누구나 바빠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된다.》는 속담이 전해지고있다.

우리 선조들은 10월절기의 계절적특성에 맞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콩 음식과 추어탕을 들수 있다.

10월의 절기와 민속

다. 이 시기 즐겨 만들어 먹은 콩음식에는 평안도지방의 된비지와 콩국, 함경도지방의 콩지짐과 콩나물김치, 황해도지방의 순두부국밥과 두부탕 등이 있다.

농민들은 가을걷이를 앞둔 때에 미꾸라지를 가지고 추어탕을 푸짐히 끓여먹고 기운을 돋구곤 하였는데 특히 개성지방의 추어탕이 유명하였다.

다양한 민속놀이들도 진행되었다.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숨바꼭질, 땀치기, 꼬리잡기 등이 이채를 띠었다.

올해의 한로는 10월 8일, 상강은 10월 23일이다.

본사기자